
김문수 후보의 유세장 거짓말

김문수 후보의 유세현장 거짓말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김 후보는 경기도 채무와 관련해 상대후보를 비방하며 “빚이 1조 밖에 없었는데 4조로 빚더미 위에 앉았다”, “(본인은) 빚이 있던 거를 8년 동안 빚을 확 줄였다” 고 발언했습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회계결산 및 지방재정365 공시자료가 증거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의 채무는 이 후보가 취임한 2018년 말 2조 6,283억이었고, 이 후보가 퇴임한 21년 말은 2조 9,112억입니다.

김 후보의 4조 빚더미 발언과 달리 채무증가액은 2,829억입니다. 동 기간에 경기도 본청 예산은 29조 2,797억에서 46조 3,745억으로 늘어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9.0%에서 6.28%로 감소했습니다. 빚더미라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반면 김 후보는 경기지사 취임 당시 3조 4,654억 채무에서 퇴임 당시 3조 6,305억 채무를 기록했습니다. 빚을 확 줄였다는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것이 수치로 확인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김 후보 10억 미수령설, 부정선거 의혹설 등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도 모자라 상대후보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김 후보는 사실여부가 불투명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0일 “네덜란드의 유명한 ASML 반도체 그런 것도 연구소를 우리나라에 유치”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SML코리아는 김 후보가 경기지사를 하기도 10년 전인 1996년도에 한국에 진출했고, 대규모연구소는 김 후보의 경기지사 임기 후에야 화성 등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연구를 말하는 건지 김 후보는 답변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렴도의 경우도 명백히 왜곡된 발언입니다. 김 후보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며 경기도 청렴도가 꼴찌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적용된 등급평가제를 봐도 이 후보의 재임기간 경기도는 꼴찌인 5등급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대부분 2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상대후보를 비방할 욕심이 마침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낳고 있습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거짓말이 위험수위를 넘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붙임. ‘2006 ~ ‘2023 경기도 본청 기준 채무 현황

※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356 공시 자료 기준

연도	채무현황(경기 본청)	비고
2006	3조 4,654억	2006.7.1. 김문수 취임
2007	3조 8,558억	
2008	4조 4,323억	
2009	3조 1,417억	
2010	3조 2,666억	
2011	3조 3,052억	
2012	3조 4,003억	
2013	3조 5,222억	
2014	3조 6,305억	2014.6.30. 김문수 퇴임
2015	3조 8,646억	
2016	3조 3,376억	
2017	2조 9,910억	
2018	2조 6,283억	2018.7.1. 이재명 취임
2019	2조 1,754억	
2020	1조 7,693억	
2021	2조 9,112억	2021.10.25. 이재명 퇴임
2022	3조 8,362억	
2023	4조 5,067억	